

# 항공전장품 전문벤처회사 '경주전장'

| 편집실 |

이번 년도는 항공우주관련 벤처의 창립이 유독 많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월에 천년의 고도에 설립된 경주전장 주식회사(대표이사 조계현)는 국내 항공업계의 창정비 바람을 몰고 온 새로운 주역이다. 100%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된 경주전장의 창립동기는 창업 멤버들의 하나된 마음이었다고 한다.

1997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전장품 사업을 하던 만도기계(주)가 부도가 났다. 더구나 항공사업이 속해있던 사업본부가 프랑스계 해외업체로 매각됨에 따라 국내의 각종 항공기 전장품 사업은 타의적으로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7년여의 노력 끝에 항공기 전장품 산업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현재의 회사 창립 멤버들은 그간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는 각오 아래 그들은 자신들이 주주가 되는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동안 투입된 수많은 비용은 물론이고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누군가가 꼭 이어나가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현재 경주전장 모든 멤버들의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2명의 전문직업인들이 모였고, 경주에는 항공전장품 회사가 하나 들어서게 된 것이다.

## 무얼 하는 곳일까?

1999년 8월부터 창립을 준비하여 6개월만에 문을 연 이곳은 항공기 및 비행체의 전기계통(generator 및 주변장치, 모터류)개발과 생산, 정비를 전문으로 한다. 때문에 항공전장품 전문회사로서 항공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체제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잡았다.

이미 설립과 동시에 삼성테크윈(주)로부터 협력업체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공군으로부터 업체 지정을 받아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 항공기의 전장품을 창정비 납품하고 있다. 기타 공군 운용 항공기들의 전장품 창정비 역시 공군 승인 아래 개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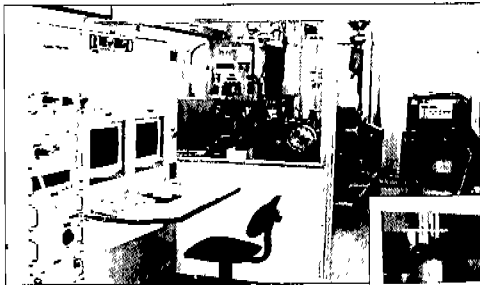
## 어떤 특별한 것이 있나?

이제 막 걸음머를 시작한 신생회사가 창업 2개월만에 공군의 창정비 업체로 지정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경주전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기반시설은 이미 중소 벤처기업의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Lockheed Martin사/ Hamilton Sundstrand사  
합동 QA실시팀 방문 (2000.4.)

AWACS 항공기용 최대의 항공기 generator (150kVA급)를 시험할 수 있는 Test Stand 설비는 기본으로 갖추었다. 정비 기술면에서도 현재 항공기 generator류, 특수 motor류 및 constant speed drive 등에 대한 overhaul/repair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 항공기용 고회전, 소형, 고출력의 generator 및 PCU를 자체 개발, 관계기관에 납품하고 있어 기술개발 측면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적자원면에서는



Generator Test stand

개발 및 생산팀원 모두 F-16전장품 사업, 중형기 전장품 개발 사업, T-50 항공기 발전기 개발 사업 등 많은 항공기 국책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특수항공기용 고회전 소형 generator는 동급의 외국제품보다 가벼우면서도 출력은 증가시키고 동시에 가격은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무얼 만드나?

현재는 전장품 창정비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Lockheed Martin사와 Hamilton Sundstrand사 공동 QA 실사 및 인증도 획득했고 F-16기 등에 창정비 납품도 개시하였다. 앞으로는 한국항공우주부

품개발조합(KATRA)에도 참여하면서 공군 운용 항공기 전장품 창정비를 국내 개발과 소형 고속회전 generator, 항공기 및 지상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특수 모터류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한다.

처음에 밝혔듯 경주전장은 항공기 전장품에 대한 다품종 소량체제로서 전문화된 업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두수 이사는 "국내 항공기 전장품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고, 성장률도 낮고, 정부 및 군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저희가 할 많은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Lockheed Martin사와 KFP-II추가 Offset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민수 분야도 추진 중에 있습



F-16 작업용 부품

니다." 라고 말하며 기술적 장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소수의 회사가 점유한 시장 속에서 헤쳐나갈 길을

설명한다.

경주전장은 세계 항공기 전장품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미국의 Hamilton Sundstrand사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외형보다 내실이 있는 한국 최고의 항공전장품 전문회사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